



덕우실업

‘W* tex’, 고감성 폴리에스터 직물의 원탑 친환경 · 공장 스마트화 · ESG 등 선도적 R&D 투자 단행



PRODUCT CODE
D#19157
COMPOSITION
RECYCLE POLY 69%
POLYESTER 31%
WEIGHT
252G/SQM
WIDTH
140cm



전체 매출의 30%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덕우실업 소재의 강점은 고가의 수입 소재와 같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 폴리에스터에 집중된 소재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면서 SILK-LIKE(실키아), WOOL-LIKE 등 차별화된 여성복 소재를 바이어들에게 제안했다.

글로벌 패션 기업의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요즘은 GRS 인증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2016년부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 개발에 착수해 2019년 사업화에 성공했다. 현재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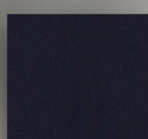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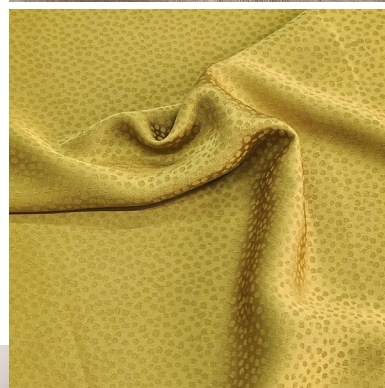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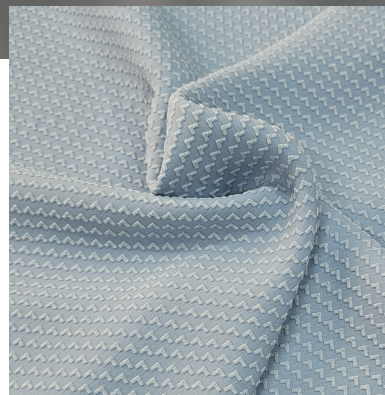
2017~2019년에는 탄소발자국 인증도 추진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분해 소재는 이미 2020년부터 생분해 폴리에스터 직물을 연구, 개발해 15개 제품을 상품화한 상태다.

올해 중남미 바이어를 대상으로 첫 판매를 시작했다.

이창현 덕우실업 연구소장은 “우리의 오랜 바이어인 ‘자라’가 JOIN LIFE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친환경 원부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친환경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우리 회사는 이미 친환경 소재 비중을 강화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대구염색공단으로 이전하고 연속식 에어텀블러, 스폰징 머신 등 선진 기계를 도입해 고부가가치 특수가공 제품 개발에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이창현 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과생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단가나 물량 싸움이 아닌 가치있는 제품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앞으로 국내 소재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ODUCT CODE
D#19171LVG
COMPOSITION
RECYCLE POLY 100%
WEIGHT
246G/SQM
WIDTH
135cm



디지털화 R&D 투자 강화

덕우실업은 고감도, 고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바이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디지털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에는 자사 웹페이지(www.duckwoo.kr)의 제품 소개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 해외 바이어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최근에는 DYETEC연구원과 함께 드레이프성 지수 개발에 힘쓰며 소재의 물성을 디지털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덕우실업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소재,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한 고감성 컨템포러리 소재 개발, 북유럽 및 미주 시장을 위한 예코 프랜들리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패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SPECIALTY

- 주요 제품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혼방 직물
- 소재 적용 여성용 의류
- 주요 거래선 INDITEX, MANGO, EXPRESS, CHICO'S 외 다수 해외바이어 및 국내 상사
- 24 S/S 대표 소재 초경량 세섬도 박지 소재(Silkia), 초세섬 스킨 웨어용 소재, 울-라이크 볼륨 소재, 고품격 광택 소재
- 기업 인증 GRS / OEKO-TEX®
- 홈페이지 www.duckwoo.kr
- 연락처 RND@duckwoo.kr 이창현 소장, 이현수 차장